

하나님과
숫자를
세어요



I

숫자 3의 뜻

숫자 3, 셋

3시를 말해요





3시는 예수님이
십자가에 달려
돌아가신 시간이예요

함께 읽어 보아요



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어
말씀하셨다.

“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”

그것은 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

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?

라는 뜻이다 (마27:46, 새번역)



2

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성경말씀



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
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.
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
때문이에요.
하나님은 이를 처음부터 아시고
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
이 땅에 보내셨어요.
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
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
치르게 하셨어요.
십자가 위에서 말이에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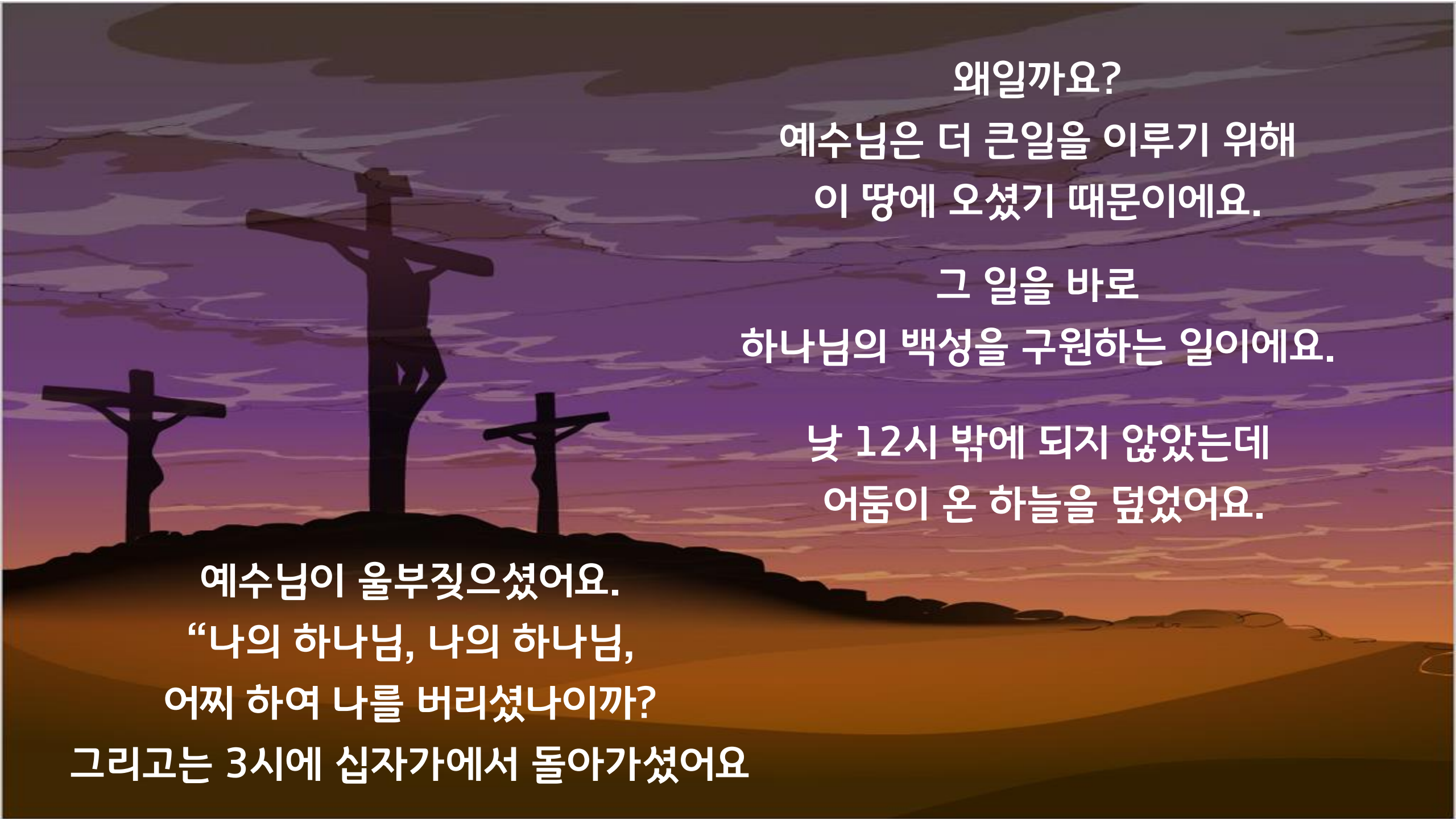
어떤 사람이 소리쳤어요.

“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,
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! 자신을
구원해 보란 말이다!”

예수님을 물론 십자가에서
내려오실 수 있었어요.

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
있었어요.

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.

The background of the entire image i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landscape at sunset or sunrise. In the foreground, there is a dark, silhouetted hill. On this hill, three crosses are visible. The central cross is the tallest and has a figure on it. To its left and right are two shorter crosses, also with figures. The sky is a mix of purple, blue, and orange, with wispy clouds. The overall mood is somber and reflective.

왜일까요?

예수님은 더 큰일을 이루기 위해
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.

그 일을 바로
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.

낮 12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
어둠이 온 하늘을 덮었어요.

예수님이 울부짖으셨어요.

“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,

어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

그리고는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

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



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

엄마 아빠랑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



3

함께 말씀을 외워봐요

말씀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

삼



셋



세시



예수님이



십자가에



꽁!꽁!꽁!



못박혀
돌아가셨어요



4. 예수님의 사람에 감사하며 3(시)을 색칠해 주세요

